

클라우제비쯔式 戰略家라는 側面에서 살펴본「毛澤東」

Lynn Rylander 著 尹 錫 燮 譯

本 記事는 現在 中共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毛澤東의 모습에 비추어 毛의 軍事的 教義들을 살펴본 것이다. 筆者는 그의 教義思想들 中 여전히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叙述하는 過程에서 클라우제비쯔가 그의 教義思想에 有関하였음을 發見하여 이 影響을 導出해낼 수 있었다.

I. 序 言

最近 中共에서는 毛澤東의 神話가 急激하게 瓦解되어가고 있다. 中共 指導者들은 毛가 “失策”도 저질렀음을 主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公式적으로 配布되었던 毛의 肖像面와 “붉은 小冊”(Little Red Books)들도 記憶속의 遺物로 化하여 버렸다. 毛澤東死後 中共의 指導者들은 政策全般에 걸쳐 實用主義路線을 採択하는 등 毛와는 顯著하게 다른 目標을 追求하고 있으며, 中共의 軍府의 立場에서 볼 때 이것은 四段階 現代化 計劃의 一環으로 質的向上에 새로이 力點을 두고 있음을 意味한다.

中共이 軍現代化로 나아감에 따라 보다 強力한 火力, 高度의 機動性, 強化된 指揮 및 統制 그리고 其他 急激하게 變化된 環境 등 이러한 여러가지 要因들에 맞추어서 軍의 教理나 戰略, 戰術은 調整되어야 하

는 것이 不可避하다. 이러한 現代化라는 變化를 成就하는 데 따르는 難易度는 現存하는 中共의 軍事敎訓이 妥當하고 持續的인 特性을 보여 주는 程度에 크게 左右될 것이며, 특히 “毛의 人民戰爭”(People's War) 概念이 中共武裝軍의 탈바꿈에 哲學的 準拠로서 寄與할 수 있으며, 또는 軍事理論家로서의 毛가 理念主義者로서의 毛와 對立되어야 하는가?”의 問題가 極히 重要하다.

人民戰爭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이는 21世紀로 向하는 中共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없는 것이 明白하다. 그러나 毛가 클라우제비쯔를 研究한 学徒였다는 事實을 示唆하는 証拠가 相當히 많이 있다. 따라서, 클라우제 비쯔에게서 由來한 原則들이 毛의 軍事的인 業績에 보다 폭넓게 適用된다고 할 것 같으면 軍事理論家로서의 毛는 中共의 軍事 現代化 作業에 있어서 至大한 影響力을 繼續해서 끼칠 수 있을 것이다.

Ⅱ. 毛는 클라우제비쯔를 研究하였는가?

毛가 意圖的으로 그 自身の 軍事敎理에서 클라우제비쯔의 생각을 具體化시켰는지에 대한 問題는 歷史的으로 볼 때 1930년대 後半에 가서야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毛沢東과 中國共產黨의 立場에서 볼 때, 戰爭은 1927年 失敗로 끝난 “가을 秋收 暴動”(Autumn Harvest Uprising)에서 비로소 始作하였다. 이 暴動과 광쑤우, 난창暴動을 둘러싼 一連의 事件이야말로 4月 國民黨 肅清과 8月 蘇聯軍(Red Army)의 構成을 본따서 軍事的인 解決策을 試圖하기로 한 共產黨 決定의 前兆가 되었다. 그後 7年동안 共產黨의 軍事路線은 一定치가 않은 채로 있었으며, 그 期間 대부분을 통하여 毛沢東은 軍事路線 開闢에 대해서 影響力을 行하지 못했다.

이 期間은 우선 在來式 軍事作戰으로 特徵지워지며, 1930년 파국적인 “이 이산 攻擊”(Li Li-San Offensive)으로 要約되었다. 이와 같은 共產黨 宣傳의 失敗는 毛沢東과 그의 理想에 대해 어느정도 커

다란 影響을 미쳤다. 그러나 年內에 코민테른의 後援을 받아 공산당선 전에 비난을 가한 結果로써 毛沢東은 다시 한번 그의 影響力을 크게 잃고 말았다. 1932年 닝두(Ningdu) 會議에서 그는 黨 軍事委員會 議長職에서 解任되었다.

그 以來 곧이어 1935年 1月 Zunyi 會議—大長征 中途에 開催되었음—에서 毛沢東은 轉換期를 맞았다. 이 會議에서 軍事問題에 대한 毛의 統制는 最終的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그에 대한 正當性과 더불어(이로 인해 그의 地位는 더욱 확고히 되었다.) 그後 그의 公開發論場으로 活用하기 위해 Yanan 에 赤軍大學(Red Army Coliege) 을 設立하게 됨으로써, 毛는 自身の 軍事思想 明文化 作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時期에 들어섰다.

大長征이 끝난 후 1935年 10月 Yanan 에 共產軍이 到着함과 때를 같이하여 毛는 그 자신 스스로가 여러가지 政策을 말았다. 그런 政策 가운데 하나는 對日本 戰爭을 對備하여 將校들을 訓練시키는 赤軍大學에서 軍事問題를 講義하는 일이었다. 部分的으로나마 이러한 講義를 担当한 結果로 1936—38年의 期間동안 表에서 볼 수 있듯이 毛는 特히 많은 著述을 하였다.

毛는 嶺南에 到着하였던(1935 .11) 때부터 처녀 軍事作品을 脱稿(1936 .12)했던 時期동안 軍事問題에 대하여 대단한 學究熱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는 苦難의 大長征期間中에는 體系的으로 이러한 作業을 할 時間이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당시에는 이미 그의 主要思想들이 충분히 完熟되었을 것이므로 1936年 初期 講演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冊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기간에 該當하는 歷史記錄을 살펴본다고 해서 毛가 그의 研究期間동안에 클라우제비쯔를 研究했다는 決定的인 証拠는 없지만 몇가지 要因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암시를 찾아 볼 수 있다.

毛의 主要 軍事著書 (1936 - 1938)

中国革命戰爭의 戰略問題 (講演)	1936
게릴라戰爭論	1937
基礎戰術 (講演)	1938
对日本 게릴라戰의 戰略問題	1938
遲延戰論 (講演)	1938
戰爭 및 戰略問題 (演說)	1938

첫째, 毛와 같은 教師가 自身の 講演에 대해서 철저히 研究한다는 것은 極히 自然스러운 일일 것이다. 初期에 그는 몇가지 學問水準 (Academic Level)에 입자하여 教授하여 왔으며, 훗날 Edgar P. Snow氏에게 다음과 같이 述懐하였다 : “……本人의 一貫된 所望은 教師가 되는 것입니다. 本人은 偉대한 指導者나 길잡이가 되는 것에 관심이 모든 ‘偉대한 事業’이라는 업적에 대해 듣고싶지는 않습니다.”

毛와 같이 현실적인 教師가 여러가지 서적들—여기에는 클라우제비츠의 冊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을 철저히 연구하지도 않은 채 軍事 敎理를 開發, 表現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복잡한 일에 손을 댔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곤란하다. 우리는 毛의 著書 및 研究에 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証拠를 가지고 있다. 文化革命期間을 언급하면서 毛는 “本人이 戰略問題(이는 1936 - 38년 사이의 問題임)라고 불렀던 바에 대해 著述하였을 때 本人은 대략적으로나마 “ Sun Tzu의 軍事戰略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 회고하였다. 또한 毛는 그의 政治的靈感에 있어서는 막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크게 依存하였으며, 軍事的인 背景에 있어서도 이들 이데올로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의존하였다 (예를 들면, 1906년 레닌의 게릴라戰에 關한 論文이 그것이다).

中国歴史도 毛의 眞實스런 幻像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毛는 BC 8세기에서 AD 4세기에 이르기까지의 主要戰鬪 및 戰爭에 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인용하였다. 또한 13, 14세기에 일어난 “白蓮教徒의 亂”으로부터 毛 자신이 간략하게나마 직접 經驗하였던 1911년 革命에 이르기까지 中国反亂의 眞實 사건의 연속을 인용하였다.

여기에 對하여 毛는 그의 主思想을 조명하기 爲해서 “수호지”나 “서유기”와 같은 서사시 등의 中國 소설상에 나타나 있는 歷史的인 公積을 引用하였다. Samuel B. Griffith가 記錄해 놓았듯이 “이러한 小說들을 通해서 毛는 힘 안 들이고 將軍으로서의 技術과 戰略術 그리고 戰術學에 對한 明確한 所養을 習得하였던 것이다. 이 期間동안 毛가 클라우제비츠를 研究할 充分한 機會를 가졌음은 의심할 餘지가 없다. 클라우제비츠가 中國에 잘 알려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毛의 高級 指揮官들 多數가 獨逸顧問官들의 도움이 컸던 Huangbu 소재의 國民黨 軍事學校 졸업자들이며 (여기에는 赤軍大學總長인 임포도 끼어 있다), 기타 다른 사람들은 클라우제비츠적인 原則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督軍學校 (Warlord School)에서 教育을 받았고, 그의 사람들도 같은 分野에 중점을 두고 教育시키는 러시아교육을 받았음을 볼 때 이는 더욱 分明해진다.

끝으로 毛는 “戰爭論” 사본을 주의깊게 탐독하고 상당히 많은 주석을 달았던 레닌의 저작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毛가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毛가 클라우제비츠의 作品을 자신의 著書에 직접적으로 導入하였음을 시사해주는 端緒로는 특수한 사례 몇 가지만이 있다. 그는 “게릴라戰爭論”에서 단 일회만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인용하였다.

게릴라戰爭論 :

클라우제비츠는 戰爭論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느 時期의 戰爭도 自己特有의 形態와 固有한 條件을 지니고 있으며, 이렇기 때문

에 모든 時代는 그 時期에 符合되는 特定한 戰爭理論을 지녀야만 한다.”

毛가 두번째로 인용한 클라우제비츠의 말은 “戰爭은 다른 手段을 使用한 政治의 連續에 불과하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毛 또는 毛의 著作編輯者 둘중의 하나(우리로서는 確認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을 레닌이 하였다고 毛의 冊에 註를 달아 놓았다. 레닌은 1915년에 그의 名譽를 걸고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이 이 귀절의 出處라고 確信하였다. 또한 戰爭의 本質을 論하는데 있어서 毛는 아마도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에서 참고를 하였음을 認定하는 뜻에서인지 클라우제비츠의 생각 몇가지에는 따옴표를 붙여 놓았다. “戰爭論”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귀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有血政治”, “自身을 保護하는 것과 敵을 敗北시키는 것”, “敵의 抵抗力을 말살하라.”

偶然이라고 말한다면 치더라도 毛가 大長征中에 있던 數個月동안 그 自身の 軍事哲學을 綜合하고 있었을 때 “戰爭論”을 研究하였음을 暗示하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可能性을 인정하게 된다면 問題의 核心은 다음이 된다: 毛에게 있어서 클라우제비츠는 “지대한” 影響을 미쳤는가?

Ⅲ. 毛의 思想은 클라우제비츠的이었는가?

毛의 思想에 끼친 클라우제비츠의 影響력의 깊이는 毛의 著書속에 나타나 있는 주요 核心과 “戰爭論”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취급하였던 문제와를 비교하면 그 정도를 살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게릴라戰이나 遲延戰에 관계된 부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人間의 力學的 役割이나 辯証法 및 純粹한 軍事的 觀點 등과 같은 問題들처럼 간과해서는 안 될 高찰의 대상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중심으로 毛와 클라우제비쯔를 比較하기로 한다.

1. 게릴라戰

클라우제비쯔와 毛를 연관짓는 가장 중요한 核心은 게릴라戰이다. 물론 게릴라戰은 毛가 著述한 모든 冊子の 根幹이 되는 것으로 毛는 이것을 特殊戰이라고 불렀다. 게릴라戰에 對해서 크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클라우제비쯔도 이 문제에 對하여 “戰爭論” 중의 한 節(武装人民: The People in Arms)을 熟讀하였다. 여기서 게릴라作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結論을 내렸다. 즉, ① 戰爭은 防禦圈 内에서 遂行될 것. ② 戰爭이 단 1회만의 攻撃으로 決定되지 않을 것. ③ 戰場이 廣大한 面積을 佔하고 있을 것. ④ 国民性이 게릴라戰에 적합할 것. ⑤ 国土가 地形的으로 거칠고, 접근이 어려울 것.

毛 역시 이 다섯가지 조건을 강조하였다. 自国内 領土는 安全基地의 근간이 된다는 클라우제비쯔의 생각은 게릴라作戰에 절대될수인 “後方基地”로서 毛가 강조한 基地地域과 일치한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對日本 共産党戰爭은 中国 中心部인 Shaanxi省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쯔의 두번째 要點(戰爭을 단 1회의 攻撃으로 解決하려는 생각을 버릴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毛의 遲延戰論의 근간이다. 클라우제비쯔와 마찬가지로 毛도 게릴라作戰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넓은 戰場이 필요하다는 점을 認識하였다. 그는 事前 必要條件으로서 準植民地的인 狀態 및 半封建的 狀態 그리고 國家의 經濟的 落後性과 더불어 中國의 廣大한 領土를 강조하였다. 国民性이라는 問題에 있어서 볼 때, 長久한 反亂의 歷史를 지니고 있고, 日本侵略軍을 맞이하였던 毛 當時의 中國 國民氣質은 確實히 게릴라戰에 適合하였다. 1960년대 中반 毛가 Andre Malraux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은 특정 상황에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農民暴動을 組織하기는 하였지만 이 暴動을 煽動하지는 않았습니다. ”

클라우제비츠의 마지막 지적(接近不能性)은 毛에게 있어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다. 毛 역시 山中에 있는 基地地域의 長點을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게릴라가 敵의 作戰을 피하여 충분히 機動할 수 있을 정도로 地域이 넓은 경우라면 비교적 開放된 地域에서도 基地地域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클라우제비츠와 毛에게 있어서 成功的인 게릴라作戰에 必要한 基本條件은 서로 調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게릴라戰 遂行에 대한 그들의 見解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毛의 게릴라戰 理論은 그의 6個 原則으로 요약되어 있다:

- 先制權維持: 戰略的 防禦戰爭에 있어서의 신중히 計劃된 戰術的 攻擊: 戰略적으로 遲延되는 戰爭에 있어서의 戰術速度: 內線에서 戰術적으로 遂行되는 戰爭에 있어서의 外線에 대한 戰術作戰
- 正規軍作戰을 補完하기 위한 作戰遂行
- 基地設置
- 攻擊과 防禦 사이의 關係에 대한 明確한 理解
- 機動作戰(Mobile Operation)의 開發
- 正確한 指揮

毛의 첫번째 原則은 재래식 작전과 게릴라戰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核心 原則은 軍의 신속한 移動을 통한 分散과 集中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毛의 유명한 16개 공식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 敵이 前進하면 後退한다.

敵이 野營하면 擾亂한다.

敵이 지치면 攻擊한다.

敵이 退却하면 追擊한다. ”

클라우제비츠도 게릴라戰을 이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記述한 바

있다. 즉, 확실한 抵抗은 없이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힘을 집중하여 “애매모호하면서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毛의 주된 목표는 이중양식 (Jigsaw Pattern)을 開發해내는 것이었다. 이는 게릴라는 “外” 線에서 (다시 말하면 敵의 後方에서) 作戰하는 반면에 正規軍은 “內” 線에서 戰略적으로 作戰한다는 戰術을 뜻한다. 이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게릴라는 敵의 소규모 부대를 殲멸시키고, 대규모 부대를 擾亂·弱화시키며, 병참선을 공격하고 적으로 하여금 힘을 분산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며, 재래식 군대와 게릴라의 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게릴라作戰의 本質에 대한 見解도 놀라울 정도로 이와 비슷하다.

“攻擊者가 決定的인 戰鬪에서 일단 승리를 획득한 후, 敵地에서 주로 築城作業을 일삼고, 또 여러곳에 守備隊를 잔류시켜 병참선엄호에 노력하고, 여러지역에 부대를 파견하여 流動의 自由와 인접지역의 질서 확보에 급급하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防禦軍이 다시한번 決戰場에 들어설 時機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와 毛는 공히 게릴라와 재래식軍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게릴라는 “주력부대를 분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차라리 분쇄임무는 정규군에게 유보해두고 戰場 주변을 “조금씩 잡아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비슷하게 毛도 게릴라作戰만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군 작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클라우제비츠와 毛는 세번째 原則 (基地)에 대해서 훨씬 이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安全基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基地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領土概念으로는 보지않았다. 領土를 확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적군을 殲멸시키는 것 (또는 우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클라우제비츠는 주장하였다. 毛 역시 同感을 표하고 있는 바 “영토를 획득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영토를 잃는다고 해서 슬픔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은 바가 있다. 물론 우세한 군대를 맞이하였을 경우에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융통성이야말로 게릴라戰 遂行의 前題條件이 되는 것이다.

攻擊과 守備간의 關係를 다룬 毛의 네번째 原則은 遲延戰에서는 “戰略的” 防禦를 담당하는 동안 敵後方에서 戰術的 게릴라 공격을 가한다는 개념을 구체화 해놓은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毛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입장에서 攻擊과 防禦를 취급하였다(그는 “戰爭論”에서 이 문제로 2개 章을 할애하였다). 그러므로 게릴라軍에의 역할과 관련하여 내린 그의 結論이 毛의 結論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결코(또는 가능하다면) 이 重要的 防禦手段을 戰術的인 防禦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라”는 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다.

毛의 5번째 原則(機動戰)은 毛가 추구한 지연전적인 성격을 띤 전쟁을 통해 가능해진다. 遲延戰을 통해서 게릴라部隊는 보다 나은 훈련을 받게 되고, 충분한 장비를 갖추게 되며, 그들의 政治的·敎理的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毛는 게릴라부대를 敵後方的 “광범위한 戰線”을 따라 공격적인 “戰役”(Campaign)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正規部隊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궁극적으로는 게릴라부대를 정규화한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게릴라부대는 클라우제비츠 당시의 형식적이고도 엄격했던 재래식 군조직에는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게릴라부대는 정규군과 거의 같은 정도의 힘을 증대시켜 적의 후방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대규모화되어 제대로 조직을 갖추게 된 게릴라부대는 정규부대(“게릴라부대를 정규군처럼 위장시켜 게릴라부대가 보다 큰 작전에도 참가할 수 있게 해준다.”)의 소속 부대와 협력하여 적의 측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힘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방어하게 될 적의 후방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게릴라활동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毛의 여섯가지 原則 가운데 마지막 原則은 정확한 指揮다. 이는 毛自身에 대한 것으로 戰略적으로는 中央集中化하고, 戰術적으로는 分散化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 원칙은 확실히 “天才”를 강조하였던 클라우제비츠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는 이 리더쉽의 절대적인 속성을 강조할 때, 毛와 마찬가지로 分散化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총사령관은 대규모 전투에 있어서만 인원에 대한 작전을 통제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2. 遲延戰

毛는 게릴라戰理論 뿐만이 아니라 遲延戰理論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遲延戰에 관한 力学(Dynamics)이야 말로 그가 게릴라敎理書를 저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毛와 클라우제비츠 공히 지연전을 통하여 침략자의 약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게릴라공격에 대비하여 확장된 병참선을 확보 유지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침략자의 공격자원(사기)을 고갈시킴으로써 방어자에게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毛는 지연전을 戰略的 防禦, 戰略的 교착상태, 戰略的 反擊의 3 단계로 구분하였다. 毛는 우선적으로 敵(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日本이 된다.)의 공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長期化는 군사군형에 있어서의 점차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관주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반적인 전쟁권태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단계에서는 재래식(정규)기동전을 중심으로 하여 게릴라 및 국지전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적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저항을 받는 동안 보병의 부족에 직면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毛는 戰略的인 교착상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그는 확보한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전략적인 공격을 중지하였다. 毛는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방어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 단계에서는 그 성질상 게릴라에게 전투작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동작전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 두 단계에 있어서 毛는 중국군이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는 결정적인 교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번째 단계에서 中国은 戰略的인 反擊을 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機動戰에 의존하였으나 점령되었던 領土를 재탈환함에 따라 국지전도 재개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 게릴라軍은 보다 정규적인 작전을 수행동안 보조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軍의 균형이(궁극적인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국에게 더이상 불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지 않았다.

클라우제비쯔는 정규군을 국내로 철수한다는 맥락속에서 遲延戰概念(遲延戰이란 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지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작전이다.)을 설명하였다. 그는 방어군이 국경선에서 공격자와 대응할 수 없으나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참언하면, 클라우제비쯔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어느 지역에도 이와 같은 작전에 적합한 공간이 없다고 보았다). 毛의 군대가 작전하였던 조건과 유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쯔의 철수(실제로 이는 毛의 戰略的防禦와 동일한 뜻을 지닌다.)에 대한 생각도 毛와 일치한다. 그는 철수를 “간접저항이라는 특수한 형태(아군의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적 자신의 힘의 소모를 통하여 적을 파괴하는 형태)”로 보았다.

클라우제비쯔는 毛의 제2단계인 戰略的 교착상태에 대해서는 깊게 논하지 않았다. 이대신 그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점진적인 변화를 거친 例를 역사속에서 모색하였다:

“1812년 러시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一國은 自國內의 심장부(영토내 깊숙이에서)에서 최대의 힘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적이 방어국의 영토내로 깊숙이 들어섬으로써 시기적으로 볼 때, 적의 공격력은 고갈되고 반면 방어자는 이때가 공격자에게 막대한 공격력을 퍼붓는 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毛 역시 “게릴라戰論”에서 이와 동일한 예를 들어서 이와 똑같은 생각을 설명하였다.

세번째 단계(反擊)에 있어서도 毛와 마찬가지로 클라우제비쯔는 “攻擊에로의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전환(섬광이 번뜩이는 복수의 칼)”을 통해서 방어자는 결정적인 전투를 행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3. 人間의 力學的인 役割

클라우제비쯔나 毛 공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지형이나 기후 등과 같은 제반 고려사항들은 부차적일 뿐이며 결국은 人間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클라우제비쯔는 “정신적인 요인”(지식과 심리적 특질 그리고 영향력 등에 의해서 창조되는 모든 것)이라는 말과 특히 천재(知力과 氣質이라는 技術)라는 용어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는 “戰爭論”에서 상세히 취급되고 있으나 다음 귀절은 클라우제비쯔의 결론을 포괄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精神的인 要素는 戰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戰爭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영혼을 구성하며, 전쟁 초기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힘(특히 意志와 융합되는 힘)을 유도하고 동원하는 意志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意志 자체가 精神的인 특질을 지니기 때문이다……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요인의 중요성과 그 정신력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아 왔다.”

精神的인 요인에 해당하는 말로 毛는 클라우제비쯔와 마찬가지로 毛

가 명확하게 취급하였던 전쟁에서의 人間의 力學的 役割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遲延戰論”에 실려있는 다음 귀절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戰爭에서의 승패는 각 진영이 처해있는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및 地理的 條件과 각 진영이 수행하고 있는 戰爭의 性質 그리고 각 진영이 받고 있는 국제적인 지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들 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승패의 가능성(확률)만을 시사해줄 뿐이지 승패의 문제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노력이 첨가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전쟁 방향과 의도 그리고 전쟁에서의 인간의 역학적인 역할 등이 그것이다.”

흥미롭게도 역학적인 역할을 취급한 부문에 있어서 毛는 인용한 곳에는 인용하였음을 뜻하여 인용표를 붙인 정치의 연속으로서의, 피의 정치로서의 전쟁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중간중간에 삽입하여 놓았다.

4. 辯證法的 關係

변증법적 관계라는 개념(막스 레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수단 가운데 하나임)은 클라우제비츠와 毛의 저서속에 전쟁과 관련된 동일한 맥락으로 나타난다. 공격과 방어를 취급하면서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두가지 다른 사물을 취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립은 사물 자체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간의 관계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립은 공격이나 방어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즉, 결정속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毛의 견해는 共產主義者로서의 毛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된 이론적 근거 가운데 하나로 1937년 출판된 “反駁”(On C-

ontradiction)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전쟁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 이 모두는 상대적인 모순현상이다. 한편이 없이는 또 다른 한편은 존재할 수 없다. 두가지 현상은 전쟁에 있어서 동시에 일어나며,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전체를 구성하며, 이 관계가 앞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5. 순수한 군사적 관점

毛와 클라우제비쯔는 놀랍게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순수한 군사적인 관점”을 반대하였다. 클라우제비쯔는 “순수한 증오”만이 전쟁의 전체동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毛는 군사문제와 정치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순수한 군사적인 견해만을 지켰거나, “군사문제는 정치적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그의 군사 동지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응징하였다(毛의 저서안에서 볼 수 있는 정치와 전쟁사이의 클라우제비쯔적인 내용의 연관관계를 주목하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毛는 그 자신의 군사적인 사상을 다듬는데 있어서 클라우제비쯔를 연구할 동기와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毛의 책속에는 클라우제비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한되어 있으나, 毛의 핵심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클라우제비쯔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면에 있어서 이렇다면(즉, 毛가 클라우제비쯔적인 전략가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Ⅳ. 毛의 思想은 지속될 것인가?

毛의 軍事理論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항한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作戰과 중국에서의 궁극적인 권력 확립에 대하여 철학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훗날 毛의 人民戰爭은 기타 공산주의혁명 운동의 이론적 모델역할을 하였다. 중공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적국을 人口數라는 힘만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人民戰爭은 소련의 공격에 대한 주요한 억제력 가운데 하나로 남아 왔다.

그러나 毛의 생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毛의 생각들이 현대화하고 있는 중공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中共人은 이런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대적인 조건하에서의 인민전쟁”이라는 개념을 이미 개발하여 왔다. 毛의 神話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감에 따라(이는 毛의 사상가운데서 “실수”가 많이 노출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人民戰爭”을 버리면서까지도 “현대적인 조건”을 강조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毛의 思想이 클라우제비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앞에서 말한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毛의 이론을 현대화하고 있는 군사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다. “武裝人民”이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 가운데서 이보다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전쟁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毛의 1930년대 “人民戰爭”은 1980년대 중공에서도 타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毛와 같은 이데올로기주의자가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제비츠적인 전략가로서의 毛는 명실공히 중공에 있어서 주요 군사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出處: Military Review 81.8月>